

## 요한복음 소개

메리앤 메예 톰슨(Marianne Meye Thompson) 박사는 요한복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예수님의 인격체 안에서 구현되었다는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을 쓰고 싶지 않으세요? 감독님은 영화를 만드시잖아요. 저는 책을 쓸 뿐이죠.

저는 Marianne Meye Thompson 박사입니다. George Eldon Ladd 신약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 단어를 사용할 때, 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생각하는 것, 믿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생명이고,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창세기가 생각나실 겁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도 창조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이 태초와 자신이 쓰고자 하는 이야기의 시작을 생각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의 창조를 인용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생명에 대한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현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문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모든 것이 생명과 관련된 이미지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음식이 되는 빵,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활, 나뭇 가지에 생명을 주는 포도 나무, 양을 보호하는 목자.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행하신 것도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복음서가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며 많은 일을 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고 행했던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행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행한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치유, 음식, 사랑,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선물입니다.